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쉬베이홍’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시리즈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정교한 수작업으로 장식된 3 가지 타임피스

주요 특징:

- **쉬베이홍:** 20 세기 초, 대담한 수묵화로 중국 현대미술의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인 아티스트
- **탁월한 미니어처 작품:** 2cm²에 불과한 캔버스 위에 쉬베이홍의 말 그림을 생동감 넘치게 재현한 핸드 페인팅 에나멜 케이스백
- **메티에 라르™ 노하우:** 예거 르쿨트르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하나로 융합된 세 가지 세련된 공예술 -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과 *그랑 퓨* 에나멜, *기요세*
- **리미티드 에디션:** 각각 10 피스 한정으로 출시되는 세 가지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모델

다가오는 말의 해를 기념하여, 예거 르쿨트르는 화이트 골드로 소재의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 3 종을 선보입니다. 폴로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리베르소의 케이스백에는 중국의 유명 아티스트 쉬베이홍(Xu Beihong)의 작품이 미니어처로 재현되어 말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각 다이얼은 핸드 기요세와 그랑 퓨 에나멜로 장식되었습니다.

두 문화를 잇는 말을 향한 오마주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를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승마 스포츠인 폴로를 즐겼습니다. 폴로 경기 중 시계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리베르소는 견고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회전 케이스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포츠 위치의 범주를 넘어선 리베르소는 회전 케이스와 아르데코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목시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베르소와 본질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말은 십이지신 중 일곱 번째 동물로, 2026 년 말의 해를 맞이해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말은 동양 문화에서 수천 년 동안 교통, 농업,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용기, 기운, 고결함, 충성심, 우아함,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동양 신화의 중심이 되었으며, 용마(龍馬) 및 천마(天馬)와 같은 생명체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말은 십이지신 중 일곱 번째 동물로, 2026 년 2 월 설날에 말의 해가 시작됩니다.

현대 중국 미술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정교한 장인 정신

쉬베이홍(1895-1953)은 20 세기 중국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술가이자 교육자로, 중국 현대 미술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 미술에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고자 노력했습니다. 쉬베이홍은 1919 년부터 1927 년까지 파리 에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에서 수학하고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유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실생활을 그림에 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말과 새를 그린 수묵화로 유명하며,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표현과 상징적인 붓놀림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쉬베이홍' 시리즈는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구현된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기요세의 세 가지 뛰어난 기술을 통해 예술가의 유산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강렬한 세 가지 이미지와 어우러지는 매혹적인 컬러의 다이얼

케이스백 장식의 핵심은 1m²가 넘는 쉬베이홍의 수묵화 원본을 2cm² 크기로 축소하는 작업입니다. 미니어처로 재현된 그림은 작가의 대담한 붓놀림에 담긴 역동적인 에너지와 말의 정신을 우아하게 전달하는 미묘한 디테일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각 케이스백의 에나멜 페인팅에는 80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이얼 면은 핸드 기요세 패턴 위에 그랑 퓨 에나멜이 적용되어 그림과 시각적 조화를 이룹니다. 각 에나멜 컬러는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 동양 산수화에 자주 사용되는 원본 그림의 배경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의 세련된 디자인은 기요세 패턴과 풍부한 에나멜 톤을 강조합니다.



‘달리는 말(The Running Horse)’와 ‘전마(Two Horses)’ 모델은 1942 년 쉬베이홍의 걸작 전마(戰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 태종의 군마를 기념하는 7 세기 석조 부조 연작인 소릉육준(昭陵六駿)에 바치는 헌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모델인 ‘서 있는 말(The Standing Horse)’은 고요한 힘과 고결함을 담아낸 쉬베이홍의 1939 년 작품인 입마(立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달리는 말’ - 위엄과 우아함을 묘사

위엄과 우아함을 풍기며 질주하는 말 한 마리는 시공을 초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이얼은 그린 컬러의 그랑 퓨 에나멜로 반짝입니다. 에버그린 파인 그린(Evergreen Pine Green)으로 알려진 이 컬러는 소나무가 지닌 영원한 활력과 고귀한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120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핸드 기요세 선레이 패턴을 정교하게 새긴 후 에나멜을 도포하여 다이얼을 완성합니다.

‘전마 (战马)’ - 강렬한 에너지와 깊은 유대감을 묘사

역동적으로 질주하는 흑마와 백마는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다이얼은 디스턴트 마운틴 블루(Distant Mountain Blue) 컬러의 반투명 그랑 퓨 에나멜이 장식되었으며, 발리콘 기요세 패턴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컬러는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의 고요한 실루엣을 연상시킵니다.

‘서 있는 말’ - 고결함과 잠재된 힘을 묘사

과감한 붓놀림과 구도로 말의 고결함과 잠재된 힘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다이얼은 부드러운 오렌지 컬러의 그랑 퓨 에나멜이 장식되었으며, 120 개의 정밀한 선으로 구성된 헤링본 기요세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크림슨 다운 오렌지(Crimson Dawn Orange) 컬러는 원작 그림의 풍경 색을 반영하여 따뜻하고 활기찬 일출을 연상시킵니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가 탑재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쉬베이홍’ 시리즈는 리베르소의 기원과 위대한 예술가, 그리고 다가오는 2026 년에 경의를 표합니다. 워치메이킹과 장식 예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세 가지 타임피스는 각각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쉬베이홍', '달리는 말'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 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선레이 패턴 기요세, 그린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9334B3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쉬베이홍', '전마 (战马)'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 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발리콘 기요세, 블루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9334B2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쉬베이홍’, ‘서 있는 말’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 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헤링본 기요세 패턴, 오렌지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9334B1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5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